

옷, 연결, 그리고 다정한 지구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후배를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후배는 어린 나이지만 품은 가치와 열린 태도, 일에서의 전문성이 존경스러울 정도다. 특히 옷에 대한 후배의 생각은 나에게 지속가능하고도 효과적인 삶의 태도 하나를 알려주었다. 후배는 옷을 거의 사지 않는다. 지인들에게 “입던 옷을 선물받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옷을 마련한다.

지난 7월, 후배에게 흰색 니트티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선물했다. 그 중 새빨간 운동화는 발목이 길어 짧은 치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신발이었다. 그 운동화는 나의 조카가 고등학교 시절 직접 사서 신던 것이었다.

항화동을 찾은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중고 의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플랫폼도 수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곳에서 거래되는 양이 많다는 것은 빈티지가 트렌드가 된 이유도 있겠지만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입지 않는 옷이 넘쳐나는 탓이기도 하다. 심지어 상표조차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가격이 싸지니 철마다 새 옷을 사게 되고, 버려지니 아까워 서랍장에 내팽개쳐 둔다.

오늘날 거대 패션 트렌드를 지배하는 패스트패션의 그들은 생각보다 아둔다. 철마다 신제품을 넣어 매주 새로운 스타일을 쏟아낸다. 단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기도 한다. 유행과 생산의 속도가 점입가경이다. 싼값에 당장 유행하는 옷을 살 수 있다. 바로 그 브랜드들이 패스트패션의 주류를 이룬다. 유행에 눈이 쏠릴수록 소비는 쉽지가 않다. 부추겨진다.

거침없는 소비는 지구가 치를 참혹한 대가로 돌아온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가 바로 이 패션 산업에서 발생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6200만 톤이던 세계 연간 의류소비량은 2030년 1억2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는 평균 5일마다, 영국 소비자는 연간 26.7kg의 새 옷을 산다고도 한다. 그 옷들은 얼마 동안 입히고, 어떤 방식으로 버려질까?

패스트패션의 창궐은 물의 위기마저 부른다. 섬유산업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소요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먼 티셔츠 단 1장을 생산하는데 무려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한 사람이 900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같다. 원료인 목화 재배에서 염색과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투입

된 물을 누적 계산한 ‘물발자국’의 무게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중고 옷을 재사용할 때마다 소나무 세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만큼의 감축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대가 움튼다. 서로 입던 옷을 교환하거나 선물할 때, 우리 각자는 지속가능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좋아하는 사람의 온기와 사연이 담긴 옷을 내 몸에 덮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대운다. 옷을 주고 받은 이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옷을 걸치면 조용하지만 즐거운 대화가 시작된다. 좋은 개인들과 사랑받는 옷들이 어우러질 세상은 마치 이스트를 만난 빵 반죽처럼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중고거래 플랫폼품을 둘러가지지 않아도, 빈티지 숍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우리는 입던 옷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다음 만남에서는 후배의 옷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그 옷을 걸친 채, 후배가 향했던 삶의 길목마다 더불어 서고 싶다. 그 세월에 어깨를 기대고 함께 걷고 싶다. 옷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고 연대한다. 그 연대 속에서 같은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파란 지구가 성난 열기를 식힌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다정한 이 파란 빛을 더 돌우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상생보험은 청구할 때 완성된다



김 지 수 협
김 주 형
(금융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보험료가 0원이고 가입 절차가 간단해도, 정작 보장이 필요한 순간 권리를 몰라 청구하지 못한다면 안전망은 서류 위에만 남는다.

보험업권과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사업 규모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26억원과 지자체 재원 14억원을 합친 140억원이다. 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발생 때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 손해보험은 휴업손해·화재·피상·폭염 등 지역별 위험을 보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향은 옳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 사고에도 생업이 흔들릴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는 분명한 가입 장벽이다. 전복 풍수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을 별도 신청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한 것도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는 의미 있는 설계다.

하지만 자동 가입이 자동 보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험금은 대상자가 지정된 보험사 접수처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보험 가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증빙해야 한다. 가입 단계의 문턱을 낮췄더라도 청구 단계에 높은 문턱이 남아 있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된다.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든 보험이 ‘청구 사각지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당국도 이 간극을 의식해 문자·알림톡과

현장 홍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상자 안내 등을 예고했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안내 계획이 있다는 것과 안내가 실제 대상자에게 닿는 것은 다르다. 알람을 보냈다고 제도를 안다고 볼 수 없고, 가입 사실을 안다고 사고 뒤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험금 지급에는 사고와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업권 기금과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는 장치도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확인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상생은 상품 이름에 붙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가입 문을 넓힌 정책이 보상의 마지막 문턱까지 낮출 때 비로소 안전망이 된다. 상생보험의 성적표는 몇 명이 가입시켰는지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몇 명이 제때 보장받았는지에 적혀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 (음 7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60년생 당분간 여행이나 출장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72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4년생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61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73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85년생 달빛이 하늘에 환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환합니다.



호랑이

50년생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62년생 바라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4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합니다. 86년생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토끼

51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63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75년생 당분간 일을 확장하려 하지 마세요. 87년생 여색을 조심하세요.



염

52년생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일찍 귀가함이 좋겠습니다. 64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들이 만사해결 됩니다. 76년생 바라는 소원이 너무 원대합니다. 88년생 지금은 운대가 약합니다.



뱀

53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65년생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입니다. 89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말

54년생 실태라가 얽혀 풀기가 어렵습니다. 66년생 마음이 심란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78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90년생 방향을 하던 중 뒷사람이 돕습니다.



호랑이

55년생 외출은 가끔씩 삼가세요. 67년생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다지세요. 79년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조심하세요. 91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집니다. 68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세요. 80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 해야 합니다. 92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닭

57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갈 것입니다. 69년생 믿음을 주는 신용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81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머지않아 곧 호전됩니다. 93년생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개

58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70년생 따질만한 일이 아닙니다. 82년생 비굴함은 패함보다 못합니다. 94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세요. 정이 돈독해 집니다.



돼지

59년생 앞길에 막막해 망망대해에 침착중입니다. 71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3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운명의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흘러내릴 때 깨어져 생기는 틈을 말한다. 이 크레바스는 눈에 덮여 감춰져 있을 때도 많아서 빙하 탐험가와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아문센과 스콧의 남극 탐험대를 위협한 사고이기도 하여 대원 중 한 명이 이 크레바스에 떨어지는 사고를 세 번이나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눈이 쌓여 빙하의 암체 부분으로 가려져 있을 수 있어 겉으로는 평평해 보이지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지형인 크레바스는 탐험가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크레바스의 틈은 깊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길게는 수백 미터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크레바스가 있다. 존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궁극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생을 받아 태어나 마치는 그 과정 과정에 예측치도 못한 굴곡을 겪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붓다는 존재는 ‘고(苦)’임을 한 마디로 일갈한 것이다. 사주팔자로 얘기하자면 운(運)에 흉신이 들 때가 운기의 크레바스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크레바스도 그 깊이가 낮게는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가 되듯 흉운의 강도에 따라 굴곡의 깊이와 크기가 다르게 다가온다. 운기가 약할 때 드는 악삼재는 깊은 크레바스에 빠진 것처럼 되는 것이고 만약 운기가 괜찮을 때 드는 삼재는 그나마 흉운에서 수월하게 벗어나기도 한다. 십 년마다 드는 대운이 호운인지 악운인지에 따라 삼재나 여러 흉길신의 작용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때 사주 구조에 천을 귀인이나 천덕, 월덕과 같은 길신이 있다면 그 런대로 인생의 고비나 위기를 수월하게 넘기게 된다. 만약 그러한 길신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흉운의 크레바스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0호	
일간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3650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8	1	9	8	1	6
9	1	1	8	6	9	2	1	8
8	6	8	2	1	1	9	9	1
2	1	9	6	8	1	1	8	9
6	1	9	1	2	8	1	9	8
8	8	1	9	9	1	1	6	2
1	2	8	9	8	6	9	1	1
9	8	1	1	9	2	6	8	1
1	9	6	1	1	1	8	2	9

8	8	1	9	2	6	9	1	1
9	1	9	8	1	8	1	6	2
2	6	1	1	1	9	8	8	9
8	9	2	6	1	1	1	1	9
6	1	1	1	2	9	1	8	9
9	1	8	1	8	9	1	2	6
1	9	9	8	6	1	2	1	8
1	2	6	9	8	1	9	8	1
1	8	1	9	2	6	9	1	1